

중국 진출한 한국 할인점은 지금

이마트 약진... 까르푸 곧 따라잡는다

삼성가전·신라면 등 한류 붐 타고 중국인 고객 유혹
이마트 매장당 年매출 1,200억... 롯데마트 내년 진출



지난 8일 중국 상하이 이마트 청 짐점을 찾은 고객들이 계산대에 몰려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국내 대형마트 업체들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에 경쟁력도 향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에 진출한 국내 대형마트 점포는 모두 9개. 지난 8일 중국 상하이 북동지구인 보산구(寶山區)에 위치한 중국내 이마트 9호점인 장강(長江)점을 찾았다. 문(지난 9월 28일 개점)을 연 지 1개월 보름 남짓 지났지만 아직도 매장은 오픈행사때처럼 고객들로 넘쳐났다.

지하 1층, 지상 4층에 매장면적이 1만3천653㎡(4천130평)의 대형점이지만 몰려든 고객들로 비슷한 규모의 광주지역 점포보다 더 붐비게 느껴졌다.

1층에 아이겐 포스트, 나이키, 아디다스와 KFC, 피자헛 같은 외국계 유명 패스트푸드점은 물론 중국식 퓨전요리 체인인 '동광지바이' 등 브랜드 의류와 먹거리를 나란히 배치해 고객들을 유혹했다.

올초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곡선형 매대를 설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과 함께 세련미를 더해 프리미엄 매장이라는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마치 광주지역의 한 고급 할인점

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요즘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마트의 자체상품인 PL(Private Label)제품도 눈에 띄었다. 이마트측은 '易福來(이프라이)'라고 이름 붙인 PL제품만 창장점에 모두 3만5천여 품목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샤, 드봉 등 화장품 브랜드는 물론 삼성 디지털가전, 신라면, 초코파이 등 한류붐을 타고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 한국상품들도 다수 구비해 중국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이마트 창장점을 둘러본 후 인근에 있는 까르푸 매장을 찾았다. 중국내 최대 할인점 업체로 성장한 까르푸지만 전형적인 대규모 창고형 매장이었다. 1층에 음식점과 독일의 유명 주방용품, 의류, 휴대전화 매장 등이 함께 배치돼 있는 등 특별한 콘셉트가 없어 다소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

2층의 의류, 식품, 생활용품 매장도 매장 배치나 제품의 품질면에서 이마트의 프리미엄 전략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국의 경제수도로 불리는 상하이에는 중국

전체 할인점의 12.5%인 181개의 매장이 치열한 영역다툼을 벌이고 있다. 매장수로는 태국의 로터스가 20개로 가장 많지만 매출면에서는 11개 매장을 갖춘 까르푸가 선두에 있다. 하지만 7개 점포로 늘린 이마트가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마트 창장점 변신건과장은 "매장당 연 매출은 평균 400억원대로 이를 한국의 1인당

GDP로 환산하면 1천200억원에 달한다"며 "인력과 상품 등 철저한 현지화 및 프리미엄 전략이 중국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오는 2012년까지 중국내 점포를 100개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롯데마트도 산둥성 칭다오에 중국 1호점을 내기로 하는 등 국내 할인점들의 중국내 빅매치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저소득층 빈곤 탈출 집중 지원

정부 자활급여법 마련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거나 약간 웃도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제도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만든 '자활급여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르면 내년 상

반기 중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층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교육훈련, 공동창업지원 및 창업자금 대여, 사회복지·보건·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특히 이들 저소득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경우 곧바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기아차 '모닝' 경차 정상 탈환

기아차의 소형차 '모닝'이 내년도 경차 편입으로 인한 상승세에 힘입어 '프라이드'를 꺾고 올해 소형차 내수 시장 1위를 탈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모닝은 올해 10월까지 내수 판매실적이 2만2천209대로, 프라이드(2만2천39대)를 170대 차이로 눌렀다.

프라이드는 1987년 2월 처음 선보인 뒤 국내 소형차의 대명사로 군림하다가 2000년 1월 단종됐다. 이후 2005년 4월 다시 출시돼 연말까지 1만5천429대가 팔려 그해에 모닝(1만6천404대)에 판매량이 975대 뒤졌으나, 작년엔 2만3천45대가 팔려 모닝(2천699대)을 꺾고 수위를 차지했다.

또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2만111대가 팔려 모닝(1만9천109대)을 1천2대차로 누르고 1위 자리를 고수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어린이 무역아카데미 16일 광주무역회관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는 오는 30일 무역의 날을 앞두고 광주 등 전국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역과 경제의 기초원리를 소개하고 직접 무역현장을 체험해 보는 '어린이 무역아카데미' 행사를 마련한다.

광주·전남지부 행사는 16일 무역회관 12층 연수관에서 열리며, 광산구 지역 초등학교 5, 6학년생 35명이 참가한다. 이날 오전에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초경제교육이 진행되며, 오후에는 무역 인프라 시설과 주요 수출품 생산업체를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무역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체험케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은행 정기에금의 굴욕?

수신잔액 자산운용사 펀드에 추월 당해

시중은행들이 정기에금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시중자금은 고수익을 노린 펀드 상품에 몰리면서 은행의 정기에금 잔액이 자산운용사 수신잔액에 추월당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말 기준으로 자산운용사의 수신잔액은 269조5천433억원으로 은행의 정기에금 잔액 268조9천834억원을 능가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잔액이 은행 정기에금을 추월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10월 한달 동안에는 정기에금이 고자 8천401억

원 증가한 데 비해 자산운용사 수신은 13조136억원이나 늘어 두 부문간의 수신잔액 격차는 12조7천억원대로 더 벌어졌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밀려 저원가성 예금인 수시입출식 예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는데다 정기에금마저 자산운용사에 늘리는 등 양면에서 협공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1-10월중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은 무려 16조6천억원이 감소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주택대출 금리 또 꿈틀

CD금리 5.36% 6년4개월만에 최고

시중은행들의 변동 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다시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한동안 보험세를 나타내다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예금이 증시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이탈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수신 기반이 약화된 은행들이 금융감독당국의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CD 발행을 늘리고 있는 탓이다.

은행들은 내년에 바젤2(국제결제은행 신탁약)가 시행되면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는 등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올 연말까지 대출을 집중적으로 늘릴 계획이어서 CD 발행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변동 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91일물 CD 금리는 12일 현재 전날보다 0.01%포인트 오른 연 5.36%를 나타내 2001년 7월14일(5.36%) 이후 6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CD 금리는 10월 초 5.35%로 올라선 뒤

5.34%로 떨어졌다가 같은 달 25일 다시 5.35%로 상승했으며 18일 만에 0.01%포인트 올랐다.

시장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현재 국민은행의 변동 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작년 말보다 0.55%포인트 상승한 연 6.01~7.61%가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작년 말 연 6.2%로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받았다면 대출 당시에는 월 51만6천666원(연간 620만원)의 이자를 내면 됐지만 그동안 금리가 0.55%포인트가 오르면서 월 이자는 56만2천500원(연 675만원)으로 월 4만5천834원(연간 55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주택금융지원협 발족

건설-금융 교량 역할

건설업계와 금융기관 교량 역할을 맡게 될 '광주·전남지역 주택금융지원협의회'가 발족했다.

13일 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지역 주택금융지원협의회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한국은행 광주전

남본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등 건설업계, 전남발전연구원 등 연구기관,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전남지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이날 건설업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에 의한 주택 공급사례와 지역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사계절 양산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암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광주·전남 주택금융지원협의회